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2주년 기념 심포지엄”

다문화 가정 갈등 해소와  
관계개선을 위한  
길은 있는가?



Seoul Counseling Center for Migrant Women

일시: 2015년 10월 7일 수요일 14:00~16:00

장소: 서울시청시민청 워크숍룸 (지하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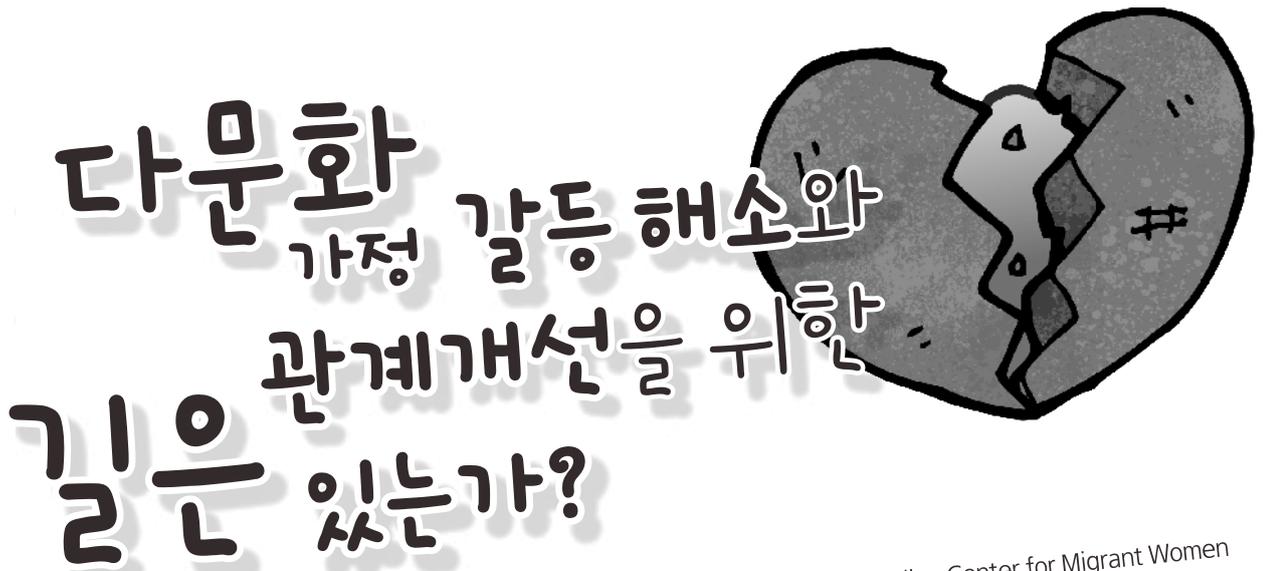
주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Seoul Counseling Center for Migrant Women

지원:  **서울특별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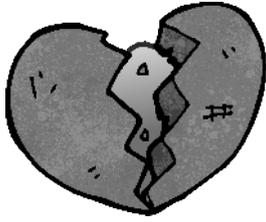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2주년 기념 심포지엄”



Seoul Counseling Center for Migrant Women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Seoul Counseling Center for Migrant Women



# 다문화가정 갈등해소와 관계개선을 위한 길은 있는가?

일시: 2015년 10월 7일 수요일 14:00~16:00

장소: 서울시청시민청 워크숍룸 (지하 2층)

주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Seoul Counseling Center for Migrant Women

지원:  **서울특별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of Korea

참석자: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민 지원기관,  
이주여성 보호시설 종사자와 상담전문가 등 약 80명

# 진행순서

사회 : 신지영 센터장 (한국여성상담센터)

14:00~14:05 등록개회 및 내빈 소개

14:05~14:10 인사말씀 및 격려사

14:10~14:30 주제발표 1

## 상담현장에서 바라본 다문화가족의 위기

강성의 센터장\_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14:30~14:50 주제발표 2

## 다문화가족의 갈등해소와 관계개선을 위한

## 상담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안현숙 이사장\_ (사)한국다문화건강가정지원협회 / 가족상담전공(상담학박사)

14:50~15:00 휴식

15:00~15:30 사례발표 ①

## 내국인 부부와 다문화 부부상담의 같음과 다름

김경자 상임연구원\_ 김영애 가족치료 연구소

사례발표 ②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부부상담 실제와 과제

김혜경 상담사\_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례발표 ③

## 법률상담을 통해서 본

## 다문화가족의 갈등 및 관계 개선 가능성

조숙현 변호사\_ 법무법인 한결

15:30~15:50 질의 응답, 종합 토론 등

15:50~16:00 폐회



주제발표\_ I

# 상담현장에서 바라본 다문화가족의 위기

강성의 센터장 \_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 1. 들어가면서

90년대 이후 한국 가족에서 나타난 중요한 변화를 꼽는다면 단연코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과 다문화가족<sup>1)</sup>의 출현이다. 그래서인지 다문화가족은 최근 10여 년 동안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고, 정부도 2006년부터 결혼이민자지원센터 21개소를 통해 한국어 등 한국생활 적응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7개소로 전국적인 인프라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국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놀라운 변화이기도 하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다문화가족 통계현황<sup>2)</sup>을 보면, 2015년 1월1일 기준으로 다문화가족은 82만 명 내외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00만 명이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가 30.5만 명, 그 배우자, 자녀까지 포함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국적, 체류비자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현황과는 매우 상이한 접근이다.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현황<sup>3)</sup>을 보면 2015년 8월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1,822,781명이며, 이 중에서 90일 이상의 장기체류 비자를 갖고 거주하는 이주민은 1,125,850명이며, 결혼이민자는 118,236명이다.<sup>4)</sup>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규모를 82만 명으로 봐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예측하고 있는 82만 명 내외로 볼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다문화가족들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여기에서는 보통 국제결혼으로 형성된 가족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2) <http://www.liveinkorea.kr/homepage/kr/multidata>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3)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2015.8월호) 총 장기체류자 1,125,850명

(2015.8.31. 현재, 단위 : 명)

문화예술 (D-1)	유 학 (D-2)	일반연수 (D-4)	취 재 (D-5)	종 교 (D-6)	상사주재 (D-7)	기업투자 (D-8)	무역경영 (D-9)
72	60,505	22,990	91	1,681	1,527	5,916	7,680
교 수 (E-1)	회화지도 (E-2)	연 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홍행 (E-6)	특정활동 (E-7)	비전문취업 (E-9)
2,643	16,418	3,109	175	621	4,720	19,302	270,986
선원취업 (E-10)	방문동거 (F-1)	거 주 (F-2)	동 반 (F-3)	영 주 (F-5)	결혼이민 (F-6)	방문취업 (H-2)	기 타
13,907	78,024	38,016	21,938	119,465	118,236	292,209	25,619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4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도별 이용 연인원 현황은 <표 1>과 같다. 전체 연 이용인원은 889,394명이었고, 그 중에 기본 사업인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및 취업연계, 교육지원, 상담을 이용했던 결혼이민자의 실 이용인원은 49,070명 정도라고 한다. 이는 아직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알지 못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결혼이민자가 적지 않다는 것이기도 한다.

<표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도별 이용 연인원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센터수	38	80	100	159	200	200	211	211
연인원	277,926	615,802	734,131	1,234,670	1,621,243	1,656,333	1,678,886	889,394
센터평균 이용인원	7,313	7,697	7,341	7,765	8,106	8,282	7,957	4,215

\*출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5) 「2014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결과보고서 I」

과연 다문화가족의 행복지수는 나아지고 있을까.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에서 2년 동안 만나는 다문화가족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상담을 할 때마다 다문화가족의 부부 및 가족 갈등과 위기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해결방안도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 그렇게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왔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무엇이 더 필요하고,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할 듯하다.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sup>5)</sup>보면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41.3%로, 2009년 실태조사(36.4%)보다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다문화 수용성이 매우 부족하고, 그 동안 진행되어왔던 다문화에 대한 이해교육이 긍정적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기도 하다.<sup>6)</sup> 결국 한국 가족의 구성원이 된 결혼이민자가 가족 안에서 신뢰를 얻거나 이해받기가 얼마나 어려운 지도 짐작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환경은 다문화가정의 불안정성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해마다 발표되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이혼의 추이를 살펴보면 더욱 더 짐작이 간다.

5) 여성가족부(2013), [2012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6) 각국 사회과학 연구자들로 구성된 세계가치관조사협회가 2010~2014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은 다른 인종에 대한 수용성이 전체 59개국 가운데 51위에 그쳤다. (한국경제매거진, 2015.9.30.일자)

〈표 2〉 한국인과 외국인 혼인·이혼 추이

(단위 : 건, %)

년 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혼인건수	6,545	6,616	13,493	15,947	12,473	11,592	9,823	11,605	14,523	15,202	24,775
이혼건수			1,700	1,649	1,519	1,356	1,402	1,498	1,694	1,744	2,012
혼인/이혼비율(%)			12.6	10.3	12.2	11.7	14.3	12.9	11.7	11.5	8.1
년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혼인건수	34,640	42,356	38,759	37,560	36,204	33,300	34,235	29,762	28,325	25,963	23,316
이혼건수	3,300	4,171	6,136	8,294	10,980	11,473	11,088	11,495	10,887	10,480	9,754
혼인/이혼비율	9.5	9.8	15.8	22.1	30.3	34.5	32.9	38.6	38.4	40.4	41.8

출처 : 통계청(2015) 2014년 혼인·이혼통계 재구성 / <http://kostat.go.kr>

〈표 2〉 한국인과 외국인 혼인·이혼 추이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은 1993년 6,545건에서 20년이 지난 2014년에는 23,316건으로 증가했지만 2005년을 기점으로 점차 줄어들고 추세에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인과 외국인의 이혼은 1995년 1,700건에서 2014년에는 9,754건으로 늘어났지만 2009년을 기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주의 깊게 볼 것은 혼인과 이혼의 건수를 대비해서 보면 1995년에 12.6%에서 2008년에는 30.3%로 뛰어 올랐고, 그 이후에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도 다문화가정의 불안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 본다. 물론 내국인의 결혼이나 이혼도 사회경제적 여건에 영향을 받고 있듯이 한국인과 외국인의 결혼과 이혼의 굴곡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2008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어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표 3〉 총 혼인·이혼건수 중 외국인과의 혼인·이혼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4년에는 총 혼인 건수 중 외국인과의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1.2%였고, 10년 지난 2014년에는 총 혼인 건수 중에 외국인과의 혼인의 비율은 7.6%로 감소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이혼의 경우는 2004년 총 이혼 건수 중 외국인과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2.4%였는데, 2014년 8.5%로 증가되어 왔다. 특이한 것은 2011년 10.1%로 가장 높았다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하지만 이 시점으로 결혼에서 외국인과의 혼인 비율보다 이혼에서 외국인과의 이혼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고, 다문화가정의 불안정성이 내국인 가정보다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7) 혼인과 이혼의 건수를 비율로 표시한 것으로 이혼을 통계로 혼돈하면 안 되며, 여기서는 국제결혼의 추이와 이혼의 추이를 비교해서 대략적인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재구성하였음을 밝혀둔다.

〈표 3〉 총 혼인·이혼건수 중 외국인과의 혼인·이혼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 혼인 건수	308.6	314.3	330.6	343.6	327.7	309.8	326.1	329.1	327.1	322.8	305.5
외국인과의 혼인	34.6	42.4	38.8	37.6	36.2	33.3	34.2	29.8	28.3	26.0	23.3
비율	11.2	13.5	11.7	10.9	11.1	10.7	10.5	9.1	8.7	8.1	7.6
총 이혼 건수	138.9	128.0	124.5	124.1	116.5	124.0	116.9	114.3	114.3	115.3	115.5
외국인과의 이혼	3.3	4.2	6.1	8.3	11.0	11.5	11.1	11.5	10.9	10.5	9.8
비율	2.4	3.3	4.9	6.7	9.4	9.3	9.5	10.1	9.5	9.1	8.5

출처 : 통계청(2015) 2014년 혼인·이혼통계 재구성 / <http://kostat.go.kr>

해마다 발표되는 혼인과 이혼의 추이 통계에 비춰볼 때도 다문화가정의 불안정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이 글은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등 다문화가족 상담 활동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이 처해있는 불안정과 그에 따른 위기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상담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사례를 통해서 상담지원의 어려움과 한계는 무엇인지, 앞으로 다문화가족의 갈등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접근이 필요한가에 대해 모색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 2. 다문화가족관련 기관에서 이루어진 상담 현황

이 장에서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현황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이 겪는 불안정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단체와 기관은 매우 많다. 그리고 다문화가족들은 자신들이 이용하는 기관을 통해서 생활이나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 상담을 받는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기관에서 지원하는 상담 활동까지 포함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다누리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상담 현황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 1)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의 상담현황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는 2013년 9월부터 서울시의 지원으로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영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이주여성 당사자 상담원이 직접 언어, 문화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갈등과 위기 상황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는 곳으로 운영되어 왔다. 본 센터는 개소 후 2년 동안 받은 상담은 총 12,276건으로 월평균 512건 정도이다. <표 4> 상담현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2013년 월평균 369건, 2014년 월평균 456건, 2015년 월평균 68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 2013. 9~2015.8 상담 현황

(단위 :건)

년/월	(2013년) 9월	10월	11월	12월	(201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건수	212	424	461	379	385	336	376	499	422	439	453	385	398
년/월	(2014년) 10월	11월	12월	(20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총계	
건수	564	564	514	564	498	624	685	694	905	785	711	12,279	

출처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통계자료

이는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이 겪는 어려움과 갈등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현실은 적극적이고 다양한 상담 지원활동으로 갈등을 완화하고,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점이다.

<표 5> 상담방법에 따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느 상담기관과 비슷하게 전화상담이 8,514건(69.3%)으로 70% 정도로 가장 높지만, 면접상담도 1,772건(14.5%), 현장방문은 715건(5.8%), 사이버상담은 959건(7.8%), 통번역은 319건(2.6%)으

로 직접 만나서 지원하는 상담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보다는 면접이나 현장 방문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원하는 욕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어려움과 갈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등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문제 해결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이메일, 문자, sns를 통해서 하는 사이버 상담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상담방법에 따른 분류

(단위 : 건, %)

구분	계	면접	현장방문	전화	사이버	통번역
2013.9-12	1,476	327	126	923	67	33
2014.1-12	5,336	790	368	3,915	103	160
2015.1-8	5,467	655	221	3,676	789	126
<b>총계</b>	<b>12,279</b>	<b>1,772</b>	<b>715</b>	<b>8,514</b>	<b>959</b>	<b>319</b>
<b>%</b>	<b>100</b>	<b>14.5</b>	<b>5.8</b>	<b>69.3</b>	<b>7.8</b>	<b>2.6</b>

출처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통계자료

상담은 누구에 의해 시작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상담의뢰인에 따른 분류에 따르면 본인이 6,767건으로 55.1% 차지하고, 그 다음은 관련기관으로 3884건 31.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밖에는 가족 및 지인이 834건 6.8%, 남편은 729건 5.9%이며, 경찰이나 중개업체에서 상담연계가 되는 비율은 아직까지는 낮다.

〈표 6〉 상담의뢰인에 따른 분류

(단위 : 건, %)

구분	계	본인	남편	가족/친척/ 지인	관련 기관	112 119	중개 업자
2013.9-12	1,476	925	135	85	323	0	8
2014.1-12	5,336	2,818	329	422	1,753	4	10
2015.1-8	5,467	3,024	265	327	1,808	43	-
<b>총계</b>	<b>12,279</b>	<b>6,767</b>	<b>729</b>	<b>834</b>	<b>3,884</b>	<b>47</b>	<b>18</b>
<b>%</b>	<b>100</b>	<b>55.1</b>	<b>5.9</b>	<b>6.8</b>	<b>31.6</b>	<b>0.4</b>	<b>0.2</b>

출처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통계자료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의 상담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상담 의뢰인의 유형에서 관련기관에서의 연계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다문화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한편으로 아쉬운 점은 가족/친척/지인보다 남편의 상담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대부분 다문화가족의 문제에서 해결 주체는 부부가 되어야 하는데, 부부 및 가족갈등 문제에서 남편들이 소극적이라고 하면 문제 해결이 그 만큼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남편들이 상담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가. 내담자들이 호소하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복합적이고 중첩되어 있다. 그래서 상담일지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 중복체크를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센터의 상담 내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혼문제에 대한 상담이었다.

<표 7> 상담내용에 따른 분류에서 살펴보면, 이혼상담은 5,343건으로 전체 23.5%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다문화가정의 갈등 및 위기상담이라 할 수 있는 가정폭력 상담은 1,839건(8.1%), 부부갈등 상담은 2,146건(9.4%), 가족불화 상담은 1,146건(5.0%)을 포함한다면 전체 상담 중에서 46%가 부부 및 가족갈등에 관한 상담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일반 법률상담이 3,300건 (14.5%)으로 그 비중이 매우 높는데 이는 우리 센터에서는 이주여성법률지원단에 의한 변호사 직접 상담이 월2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전문적인 법률적 정보와 직접적인 소송과정을 지원하는 상담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표 7> 상담내용에 따른 분류 (중복체크)

(단위 : 건, %)

구분	총계	가정폭력	일반폭력	성폭력	성매매	부부갈등	가족불화 가출외도	심리정서	이혼문제	일반법률	채류문제	노동	생활의 번역	쉼터
2013. 9-12	2,336	166	27	35	0	275	166	183	632	112	267	51	215	207
2014. 1-12	8,573	780	93	196	71	779	375	171	2,114	978	1,235	184	991	606
2015. 1-8	11,812	893	24	146	22	1092	605	193	2,597	2,210	1,342	237	1,835	616
<b>총계</b>	<b>22,721</b>	<b>1,839</b>	<b>144</b>	<b>377</b>	<b>93</b>	<b>2,146</b>	<b>1,146</b>	<b>547</b>	<b>5,343</b>	<b>3,300</b>	<b>2,844</b>	<b>472</b>	<b>3,041</b>	<b>1,429</b>
<b>비율</b>	<b>100</b>	<b>8.1</b>	<b>0.6</b>	<b>1.7</b>	<b>0.4</b>	<b>9.4</b>	<b>5.0</b>	<b>2.4</b>	<b>23.5</b>	<b>14.5</b>	<b>12.5</b>	<b>2.1</b>	<b>13.4</b>	<b>6.3</b>

출처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통계자료

이상에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에서 이루어진 상담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요약해 보면,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의 상담이 증가해왔다는 점과 특히 면접 및 현상방문 상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다문화관련 유관기관에서 상담 연계 비중이 많고, 상담 내용 중에서는 이혼 상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 2) 다누리콜센터의 상담현황

다누리콜센터는 다문화가족 상담의 가장 최일선에 있는 기관이다. 그 활동은 2006년 11월에 개소한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든지 전화로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핫라인 「1366」을 설치 운영하던 것에서 착안하여 이주여성들이 자국의 언어로 365일 상시적으로 상담과 통역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기관으로 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핫라인이기도 했다. 그리고 2011년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보 제공 콜센터인 ‘다누리 콜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결국 2014년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과 다문화가족에게 생활정보 및 서비스 안내를 해주던 ‘다누리콜센터’, 국제결혼피해 상담까지 받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콜센터(일명 다누리콜센터) 1577-1366’으로 통합되었고, 현재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은 이주여성·다문화 가정을 위한 긴급지원, 상담 및 생활지원을 13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2006년부터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상담을 해왔던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의 상담 추이를 살펴볼 수 없다는 것이 아쉽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누리’<sup>8)</sup>에는 다누리 콜센터의 상담 통계 현황만 나와 있다. 그래서 2015년 1-6월 상담통계 자료로 제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누리콜센터가 2015년 상반기 동안 받은 총 상담은 54,930건이다.<sup>9)</sup> 구체적인 상담의 내용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가장 많은 상담은 기타생활상담으로 10,854건이다. 이는 전체 상담에서 약 15.7%를 차지한다. 이것은 현재의 다누리콜센터가 얼마나 다양한 정보제공 상담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이 때문에 다누리콜센터의 역할에서 이주여성의 인권보호 상담이나 다문화가족을 위한 상담의 전문성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8)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누리, <http://www.liveinkorea.kr/homepage/kr>

9) 다누리콜센터 상담유형으로 보면 전화상담 50,010건 (91.2%), 내방상담 2,031건(3.7%), 방문상담 1,171건 (2.1%), 번역 428건(0.8%), 사이버상담 953건(1.7%), 기타 246건(0.4%)로 대부분이 전화상담임을 알 수 있다.

<표 8> 2015년 1월 ~ 6월 다누리콜센터 상담내용 (중복체크)

(단위 : 건, %)

구분	총계	가정폭력	일반폭력	성폭력	성매매	부부갈등	가족갈등	심리정서	이혼문제	일반법률	채류문제	취업노동	쉼터
2015. 1-6	69,096	7,558	446	610	75	8,499	2,403	1,329	8,002	3,417	6,991	2,562	3,836
비율	100	10.9	0.6	0.9	0.1	12.3	3.5	1.9	11.6	4.9	10.1	3.7	5.6
구분		의료	한국어	다누리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녀관련	기타생활	국제결혼피해	기타				
2015. 1-6		3,914	1,267	2,253	1,446	2,107	10,854	397	1,132				
비율		5.7	1.8	3.3	2.1	3.0	15.7	0.7	1.6				

출처 : <http://www.liveinkorea.kr/homepage/kr/multidata><sup>10)</sup>

기타 생활 상담을 제외하면 부부갈등 8,499건(12.3%)이고, 이혼문제 8,002건(11.6%), 가정폭력 7,558건(10.9%)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 상담 중에서 다문화가족의 갈등 및 위기 상담이 34.8%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3)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상담 현황 (2014년 결과보고서 중심으로<sup>11)</sup>)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누구나 거주하는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전국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1개소가 운영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본사업 중에서 상담 활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2014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제공되는 상담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되는 상담은 부부, 부모와 자녀관계, 고부관계의 문제를 파악하고, 심리, 정서지원 상담을 통해 가족관계 향상하고, 다문화가족의 심리 스트레스 완화 및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고, 긴급지원 및 전문기관 연계를 통하여 다문화가족의 갈등해소와 가족해체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연간 80회 이상으로 가족 상담은 필수로 하고, 그 밖에 개인상담, 집단상담, 사례관리, 심리검사, 외부상담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는 개별 센터마다 지원방식이나 규모가 다르다.

10)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누리에서 Home > 다문화정보 > 콜센터 상담통계로 찾아가면 상담통계가 올라와 있지만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이 2006년부터 해왔던 상담통계 현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상담의 추이를 살펴보기 어려웠다.

11)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5) 「2014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결과보고서 I」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상담 <표 9>과 같이 2014년에 총 46,270건이고, 이 중에서 가족상담은 20,539건으로 44.4%를 차지하고, 개인상담은 22,797건으로 49.3%이다.

<표 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 이용현황 (2014년)

(단위 : 건, %)

구분	총계	가족상담	개인상담	집단상담
상담건수	46,270	20,539	22,797	2,934
비율	100	44.4	49.3	6.3

출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5) 「2014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결과보고서 I」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상담 중에서 타 기관에 비해서 가족상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데, 이는 가족상담의 중요하게 보고 가족 상담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운영 지침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 주제별 이용현황을 보면 <표 10>과 같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중에서 부부문제가 19,018건이고, 전체의 41.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자녀문제 상담이 7,265건으로 15.7%를 차지하고 있고, 친인척문제 상담도 3,812건으로 8.2%로 부부 및 가족문제가 전체 65%를 넘어가고 있다

<표 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주제별 이용현황 (2014년)

(단위 : 건, %)

구분	합계	부부 문제	친인척 문제	자녀 문제	성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취업 노동	법률 상담	중독	질 환 장애	기타
건수	46,270	19,018	3,812	7,265	83	1,647	1,461	1,306	2,487	278	1,025	7,888
비율	100	41.1	8.2	15.7	0.2	3.6	3.2	2.8	5.4	0.6	2.2	17.0

출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5) 「2014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결과보고서 I」

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갈등 및 위기 상황에 대해 접근할 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짐작케 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상담 지원 활동에 따라 부부, 가족, 자녀 문제의 해결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본다.

이제까지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다누리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루어졌던 상담현황을 살펴보고, 각 기관에서 상담되었던 내용 중에서 다문화가족의 부부 및 가족 상담이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 3. 상담사례12)를 통해서 본 다문화가정의 불안정과 위기 상황

다문화가족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상담 사례를 통해서 다문화가정이 겪는 어려움과 갈등, 위기 상황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한다.

#### 1)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왜곡하는 폭언과 폭력의 문제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다.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내국인과 비교해서 보면 언어, 문화, 세대 차이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해 알고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그런데도 다문화가족의 부부나 가족들이 갖고 있는 결혼의 기대치가 너무 상이하다. 의사소통도 거의 되지 않고, 너무도 생경한 곳으로 이주하고 살아야 하는 것에 따른 시행착오나 적응 시간이 거의 고려되지 않는 듯하다.

과연 생활습관이 다르고, 성장배경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고방식까지 다른 부부가 만나서 얼마 정도 지나야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을까. 더구나 언어조차도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

사례1) >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달라는 아내에게 화를 내고, 용돈을 달라니 폭언과 폭력까지 휘두르는 남편이 무섭다.**

A씨는 본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나서 바로 임신이 되었고, 임신한 채로 한국에 왔다. 남편을 만났을 때 친절하고, 잘해주겠다고 해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한국에 오니 남편은 집에서나 차에서 담배를 폈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술까지 마시고 새벽1시에 들어왔다. 제발 임신 중이니 아이에게 나쁘다고 담배피지 말라고, 술을 너무 늦게 마시지 말고 일찍 들어오라고 말했는데, 그런 말이 남편의 성질을 건들린 것인지 큰 소리로 말을 하면서 욕까지 했다. 심지어는 머리를 손으로 쳤다. 그것 뿐이 아니었다. 임신 중이라서 한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용돈을 달라고 했지만 ‘너랑 결혼하면서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느냐’ 면서 화를 냈고, 돈 달라고 할 거면 돌아가라고 소리쳤다. 출산 후 외출 중에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남편에게 담배피우지 말라고 하니까 차를 거칠게 몰았고, 집에도착해서도 화가 났는지 아이를 방에다 눕히고 차에 가방 가지러 간 사이에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아 결국 친구 집으로 나오게 되었다.

12) 여기서 소개되는 상담사례는 외부적으로 인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이나 국적 등도 배제하였으며 내용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사례2>

**늘 욕으로 말하는 시아버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 집을 나가라고 소리쳐서 너무 속상해서 이런 환경은 아이에게도 좋지 않으니 남편에게 분가하자는 아내**

B씨는 결혼한 지 8년이 넘었다. 국적도 신청해 주지 않고, 한국어도 배우려 다닐 수 없어서 속상하다. 그런데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시아버지가 가족들에게 늘 욕을 하면서 말한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시어머니나 남편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참기만 한다는 것이다. B씨는 그 동안 시부모와 함께 살면서 열심히 살림을 해왔지만 시아버지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태도는 아이에게도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같아 너무 싫었다. 또 한국어 공부하러도 센터에도 다니지 못하게 해서 혼자서 공부하니 실력이 늘지 않았다. 센터에서 한국어 선생님을 밖에서 만나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러던 어느날 시아버지는 또 시어머니에게 욕을 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건방지게 끼어든다며 ‘나가라’고 하면서 내 가방을 문밖으로 던졌다. 이제는 더 참을 수 없다고 느끼고, 남편을 만나 분가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조그만 더 참고 살자고 한다.

2) 체류불안정으로 심화되는 부부 및 가족갈등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모습은 어떤 측면에서는 어느 가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체류’를 둘러싼 위협은 외국인 배우자에게 매우 모욕적이고, 기본적인 신뢰조차가 없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울 때가 많다. 심지어 극심한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경우에도 체류연장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갈등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모른 채 체류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판이 혼을 제기해야하는 결혼이민자들도 있으며, 단순히 동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귀화신청이 불허되어 이 때문에 가족관계가 더 불편해지는 사례도 있었다.

사례3>

**남편이 쓰러진 후 전처의 자녀들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

C씨는 결혼한 지 3년이 넘었다. 남편과 나이차이가 30살 넘었지만 남편은 친절했고, 집을 만드는 일을 오랫동안 해서 경제적인 능력도 있었다. 그러던 남편이 쓰러졌고, 의식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간병을 한다고 했지만 3살 된 딸아이와 함께 감당하기는 너무 어려웠다. 결국 밤에는 전처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했는데, 어느 날 전처 자녀들이 법률사무소에 데리고 가서 무슨 서류에 사인을 하라는 것이었다. 병원비도 많이 나오니까 남편의 통장을 자녀들이 관리한다는 내용이라고 해서 사인을 했다. 재활치료가 길어지면서 전처 자녀들은 전처에게 간병을 맡겼고, 결국 C씨도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전처는 C씨에게 병원에 오지 말라고 했

고, 조금 회복한 남편마저도 이혼하자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병원에서는 완전히 재활된 것이 아니고, 인지능력도 부족한 상황이라 했지만 전처와 전처 자녀들이 생활비도 주지 않고, 남편의 재산도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결국 협의 이혼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사례4>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른 채 일방적으로 거부 당하는 결혼이민자**

D씨 남편과 결혼해서 한국에 입국 후 남편이 일을 하라고 해서 생활비를 벌면서 살았다. 그런데 남편은 일 때문에 외국에 간다고 해서 혼자서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전화연락도 잘 되지 않았고, 최근에 한국으로 들어온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하자며 연락이 왔다. 어디에 살고 있는지, 만나자고 해도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이혼만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출입국에서 더 이상은 혼자서 체류연장을 해주지 않겠다고 했고, 남편과 함께 오든지, 이혼소송이라도 하던지 뭐라도 갖고 오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사례5>

**단칸방에 전처 딸과 함께 지내는 남편과 함께 살 수 없어서 별거 아닌 별거를 해 온 결혼이민자에게 귀화 불허 결정에 흔들리는 부부관계**

E씨는 결혼한 지 5년이 되었다. 남편은 작은 공장을 하지만 잘 되지 않았고, 부도가 났다. 전처와의 사이에 딸을 키우고 있는 남편은 공장 옆 단칸방에서 월세로 어렵게 지내고 있다. E씨는 이주노동자로 한국에서 지내다가 남편을 만났고, 남편의 어려운 형편을 알게 되면서 전에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니기로 했는데, 그 직장이 너무 멀고, 멀리하는 E씨는 출퇴근을 할 수 없었다. 결국 자신도 직장 옆에 방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본인도 재혼이라 본국에서 자녀를 초청해서 지내야 하는 처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남편은 빚도 많아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E씨는 더 열심히 지내면서 주말이면 남편과 딸도 만나서 챙겼다. 그런데 귀화신청을 했는데 동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결정이 났다. E씨는 너무 억울한 상황이면서 남편과 시댁가족들도 볼 면목이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다.

3) 경제적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는 부부관계

다문화가정의 주요 갈등은 경제적 빈곤과 관련이 높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발표한 2013년도 다문화가정 이혼상담통계결과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의 상담건수는 총 1천258건이었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는 63.6%로 절반을 넘는 것

으로 드러났다.<sup>13)</sup>

사례6>

남편은 일을 할 의욕을 잃어버렸는지 집에만 있고, 나 혼자서 10시간 이상 일하면서 딸을 키우려고 하니 너무 힘들고, 남편은 매일 술과 담배를 사야한다고 돈을 달라고 한다.

F씨는 결혼한 지 3년이 넘었다. 남편은 결혼 후 일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일하러 가도 1-2개월을 넘기지 못했다. 그러면서 매일 술과 담배를 사야한다고 용돈을 달라고 하고, 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집에 있는 물건을 던지고, 폭력적으로 행동한다. 심지어 딸아이에게 니네 엄마 나쁜 사람이며 욕을 한다. 난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사례7>

남편은 일만 열심히 하고 통장은 시이모님이 관리한다. 그런데 시이모는 한달 생활비로 10만원 정도만 줘서 너무 힘들어 살 수 없다.

G씨는 결혼한 지 3년이 넘었다. 남편은 매일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한다. 그런데 월급 통장은 시이모가 윗집에 살면서 관리한다. 생활비를 달라고 해도 제대로 주지 않는다. 내가 관리하겠다고 얘기해보았지만 남편도 안된다고 했다. 딸이 3세인데 예쁜 옷도 입히고 싶어서 G씨가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돈을 벌어서 시장도 보고 애에게 필요한 것도 산다. 돈을 번다고 이제 주던 생활비마저 주지 않았고, 더 이상 나를 믿어주지 않는 남편과 시댁가족들 때문에 살 수 없다.

4) 정신적 문제, 장애, 질병 등의 문제로 혼인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례

우리 센터로 다문화관련 기관에서 상담 연계를 정신적 문제를 가진 내담자에 지원여부를 문의할 때가 많다. 특히 다누리콜센터나 이주여성쉼터 등에서 입소자 지원을 할 때 이런 사례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각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방문상담을 통해 정신건강 평가를 해주고 있어서 관련 치료 서비스로 연계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적장애의 경계에 있거나 오랫동안 정신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배우자와 도저히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상담도 적지 않은 편이다.

13) 일요신문 2014.9.1

사례8>

**조현병을 앓게 된 아내의 안타까운 귀국길**

H씨는 남편이 강제적으로 부부관계를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고, 파출소로 찾아와서 보호를 요청했다. 쉼터에서 지내는 과정에서 혼잣말을 하고, 밤에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의 이상행동이 보였고, 의료기관에 임시 입원 치료를 통해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집으로 귀가했지만 반복적으로 남편과의 갈등으로 집을 나오고 쉼터 입소를 반복해 왔다. 결국 본국 가족과 연락이 되었고, 귀국하게 되었다. 이후 이혼 소송을 하고 싶다고 다시 찾아왔고, 남편과 협의하고 있다.

사례9>

**장애를 앓는 남편과의 시험관 아이를 강요하는 시부모 때문에 가출한 결혼이민자**

I씨는 남편을 만날 때 시어머니가 늘 함께 했다. 소개받을 때도 그랬다. 남편은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에 입국해서 보니 남편은 장애인이었다. 부부관계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시부모가 병원에 가자고 했다. 산부인과인 것 같았다. 무슨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험관 시술을 하기 위한 검사였다. I씨는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결혼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집을 나왔다.

5) 기본적 생활 및 권리에 대한 통제로 촉발되는 부부갈등

국제결혼이라는 물리적인 조건 때문인지 다문화가족 간의 신뢰를 형성하기란 참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이유로 결혼이민자의 외부활동에 대한 통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다.

사례10>

**부부에 대한 신뢰나 배려심이 없이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반복되는 경우**

부부는 모두 재혼이다. 결혼한 지 3년이 되었고 2살된 아이가 있다. 남편은 구두쇠같은 성격으로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으려고 했고, L씨는 다른 사람과도 교류하면서 지내기를 원했지만 친정가족들과의 만남도 꺼려하는 남편 때문에 몹시도 불만스러웠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었으며, 친정가족과도 만나지도 못하고 연락도 못하게 하는 남편 때문에 심리적인 상처로 남아 힘들어하고 있다. 또 특히 하면 아이를 데리고 나가라고 화를 내고, 체류연장을 안 해주겠다고 위협하기도 하고, 집열쇠를 1개만 만들어 출근 시 가져가 버려서 아내는 외출조차 못한다.

사례11>

**집 밖으로 외출도 못하게 하는 남편 때문에 지쳐가는 생활**

M씨는 아내의 외출을 막고 있다. 아이도 있어서 마트도 가고, 한국어도 배우러 가고 싶지만 남편은 무조건 안된다고 한다.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서 상담을 받고 있지만 달라지지 않고 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집에 갇혀 있는 느낌 때문인지 겁도 나고 무서워 힘들다.

## 4. 마무리

다문화가정은 지난 10여 년 동안 적지 않은 관심과 지원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회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가족관계의 불안정성과 갈등 상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앞서서 상담기관에서 받았던 상담내용에서도 뚜렷하게 부부 및 가족갈등, 이혼문제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다문화가정이라도 한국 사회에서 결혼과정이나 가족형성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비슷한 부분도 많다. 또한 모든 다문화가정이 다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서도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다문화가정 내에서 다름과 차이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오늘의 논의가 또 ‘다문화가정은 이렇다’ 라는 식으로 일반화되거나 확대해석의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의 상담 현장에서 일하는 관계자나 실무자들은 다문화가정의 불안정성과 위기 상황에 대해 상담적인 개입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지를 늘 고민하고 있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양한 논의와 방안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그 동안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에서 만났던 다양한 상담에서 느끼는 어려움 몇 가지를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한다.

첫째는 외국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와 연결되기도 한다. 갈등의 상황에서 체류의 불안정성은 강력한 위협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결혼이민 비자 심사를 강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입국 후 체류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내담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전문 상담가가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에서 부부 및 개별 상담으로 연계한 사례 중에서 통역을 끼고 하는 상담의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 이에 비해 한국어 소통이 어느 정도 되는 내담자들이 상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부부 및 가족관계가 개선되는 효과가 높았다.

셋째는 다문화가족의 상담에서 기존의 ‘성역할’ 이라는 틀에 얽매이고 있는 내담자들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결혼이민자 여성을 아내나 며느리로만 보지 말아야 하고, 또한 한국인 배우자 남성을 부양자인 남

편의 역할만으로 한정해서 바라보는 인식의 틀을 어떻게 바꾸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느냐하는 점이다. 부부 및 가족 상담을 하기 위해 가족을 만날 때 거의 대부분 ‘아무리 외국사람이고 어렵도 결혼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시작을 한마디가 같은 가족처럼 비슷한 얘기가 슬슬 나온다. 예를 들면 ‘아침밥이라도 한번 차려줬으면 이런 얘기 하지 않겠다’ 고 하소연 한다. 반면에 결혼이민자들은 ‘남편은 돈도 벌지 않고, 아내에게도 생활비를 부담하라고 한다’ 는 식으로 상담이 전개 되는 사례가 많다.

상담을 받으러 오는 다문화가족들은 누구나 상담기관에서 무엇인가 해결책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는 것 같다. 자신들이 겪는 갈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떤 노력이나 시도를 해봤는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너무 조급하다.

또한 사랑이나 신뢰의 연결 끈이 없는 관계에서 경제적 상황마저도 힘든 환경이라면 부부 및 가족관계의 개선이 무엇으로 가능할 것인지 현실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결국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갖을 수 있도록, 미래는 스스로가 선택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바탕으로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에 맞는 전문적인 상담 모델을 개발하고, 다문화가족 상담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폭력피해 이주여성쉼터 등 다문화가정의 문제를 대면하는 기관에서 부부 갈등이나 가족갈등, 이혼 상담에 대한 개입을 매우 어려워하고 있다. 특히 이주여성쉼터의 경우 상담할 장소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각하고 장기화된 폭력피해에 개입해서 상담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갈등이 심화된 경우 일시적으로 부부가 분리되어 지내면서 개별 상담 및 부부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 기관도 많아져야 한다. 특히 언어도 지원되면서 개별, 부부, 가족 상담을 통해 갈등 문제 및 관계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주제발표\_ II

# 다문화가족의 갈등해소와 관계개선을 위한 상담은 어떻게 해야하나?

안현숙 이사장 \_ 사단법인 한국다문화건강가정지원협회 / 가족상담전공(상담학 박사)

## 1. 들어가는 말

현재 대한민국의 다문화가족 수는 2015년 기준 82만명내외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혼 이민자 및 인지귀화자도 30,5만명이며 배우자의 경우 30,5만명, 자녀가 20,8명으로 추산하고 있다<sup>14)</sup>.

한국사회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한국가정과 미래세대 및 전반적인 인류문화사회적 영역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결혼이민자여성과 그들의 배우자인 한국인 남성과 자녀에 대한 이해가 한국 사회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주여성의 경우 신분상승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결혼 이주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경우 월 평균 가구 소득이 200만원 미만의 경우가 59.3%를 넘고 있다. 이주 여성의 경제활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들은 국내가정을 돌보기 위한 취업뿐 아니라, 고국의 친정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일정액을 본국으로 보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현재 여성 결혼이민자의 37%, 남성 결혼이민자의 74%가 취업하고 있다(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2011).

국제결혼 이혼율의 최고조는 2010년 2만6천274건이다, 그러나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4년 1만6천152건이다<sup>15)</sup>으로 줄었다. 이는 다문화가족 부부의 혼인관계 개선이나 변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혼인이 줄어든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14) 여가부 다문화정책과 2015. 7월 발표

15) 2015년 4월 통계청 발표

2015년 통계청에서 나온 또 다른 통계를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다.



옆의 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결혼한 다문화가정의 경우 전체 이혼률 중 2년 안에 이혼이 41,2%이다. 이는 혼은 후 서로를 알아가기 전에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다. 또한, 5~9년 이상 산 부부의 이혼율도 30,7%나 된다. 국제결혼 가정의 경우 이에 대한 부정적 해석을 하는 이들은 국적취득 후 이혼율이 높아진다고 한다.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이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만성적 갈등이 수년을 지나도 해결하지 못한 채, 이혼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급속히 해체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다면 갈등은 가족해체로 이어질 것이다.

## 2. 부부갈등에 대한 이해

갈등이론을 가족이론에 최초로 적용한 스프레이(Sprey)에 의하면, 가족갈등은 희소자원, 경쟁적 수단, 양립 불가능한 목적 또는 개인 간의 적대감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부부갈등은 가족 갈등의 하위개념으로 부부는 성장배경과 개인적 특성 등이 상이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갈등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장기적인 결혼생활, 현실적인 생활조건, 복합적인 인간관계, 환경적 변화 등 부부를 둘러싼 많은 상황들이 갈등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J, Sprey., 1971). 콜만은(Coleman)은 부부갈등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부부의 상반된 욕구·목표·기대의 불일치”라고 정의하면서, 이성적 갈등과 비이성적 갈등, 표면화된 갈등과 내재된 갈등, 상황적 갈등과 만성적 갈등, 개인적 갈등과 대인적 갈등, 근본적 갈등과 비근본적 갈등으로 분류하였다. 부부갈등은 결혼생활의 어려움이 표출되는 결과가 되어 이제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점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됨으로써 결혼생활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며,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갈등의 유무나 정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신의 갈등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 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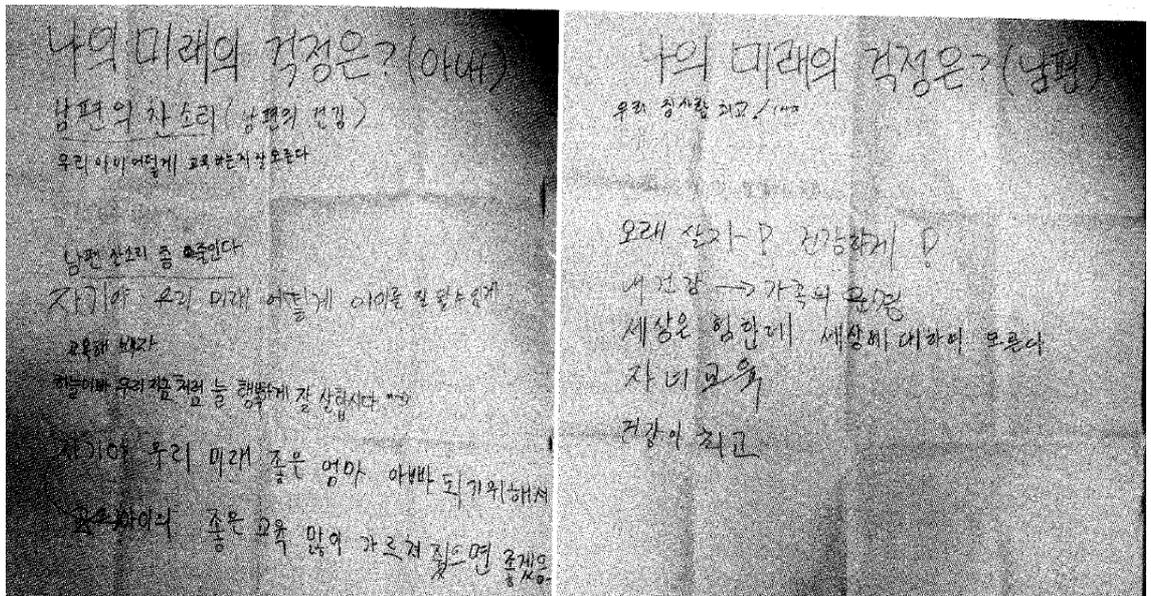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경우, 한국인 부부보다 갈등해결에 미숙하다. 이는 부부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발표자는 본 법원에서 일반적 가족갈등으로 상담했던 내담자와 위기가족갈등으로 상담을 했던 내담자<sup>16)</sup>를 중심으로 발표하고자 한다.

가족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인권침해이다. 인권침해의 양상은 발표자가 처음 다문화가족을 상담했던 2007년과는 많은 변화가 있다. 초기의 인권침해는 언어폭력과 아울러 신체적 폭력이 가장 많았으나, 가정폭력관련 법령이 발표되고 법적제도가 마련된 후부터 신체적 폭력은 현저히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줄지 않는 것은 인격비하를 포함한 언어폭력이다. 이는 결혼 초기부터 시작하여 만성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한국인배우자 남성뿐 아니라 시댁의 경우, 폭언이나 폭력을 제외하고 인권침해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시댁과의 갈등에 있어서도 “이게 인권침해인가를 묻는 일이 수없이 많았으며, 역할바꾸기를 통한 프로그램에서 “나는 좋은 의미였는데 글썽 그러네요.” 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야만 했다.

“2015 지역다문화프로그램 1박2일 캠프에서 실시했던 “부부인권을 위한 맞춤형 토론17)” 시간에 나왔던 글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다.

16) 2015년 지역다문화프로그램공모사업 위기가정 회복을 위한 “건강한 가정 행복한 사회”

17) 참석가족 24가족



다문화가정 부부의 “나의 미래의 걱정은?”이라는 코너에서 결혼 5년차 이상의 남편들의 경우, “내 나이가 많아서” “가족의 미래 부양이 고민” “내 건강 가족의 운명” “건강이 최고” “오래살자 건강하게”라고 작성하였다. 좀더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많은 연령차로 결혼하는 국제결혼 한국인 남성의 경우, 성인기<sup>18)</sup>의 후반에 찾아오는 호르몬의 영향과 신체적 변화에 따른 두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들은 젊고 성숙해지는 아내와 어린 자녀의 양육을 위한 경제적 생산 능력의 한계나이에 대한 걱정과 성생활에 대한 부담감<sup>19)</sup>을 토로했다. 이는 혼인 초기보다는 결혼 5년~10년 사이에 나타는 것으로 보여진다. 혼인초기 이혼율의 증가는 부부에 대한 이해부족이라면, 혼인 5~10년차 부부의 이혼율중 한 부분은 연령에 따른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볼 수 있다. 원활하지 않은 성기능, 미래의 경제적 부담은 다문화가정 남성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맞벌이하는 아내의 사생활을 통제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0)</sup>. 이들 중, 신체적 변화와 호르몬의 변화에 따른 변화로 심리정서적인 불안을 호소하거나 신체적 변화에 따른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도 점차 증가<sup>21)</sup>하고 있다.

국제결혼 나이차는 초기 혼인생활을 지나서, 자녀양육과 은퇴등의 나이를 고려할 때 국제결혼 남성 배우자의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18) 성인기는 성인기전기(26세~45세)와 성인기후기(46세~60세)로 성인기후기의 경우 체질이 쇠퇴되어 가고 생리기능이 하강되며 노화현상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때임으로 노년전기라고도 한다.  
 19) 안현숙 부부공평성, 부부갈등대처방식, 의사소통기술, 결혼만족도의 관계 - 한국인부부와 국제결혼부부의 비교 - 입맞춤이나 포옹하기와같은 애정표현을 잘한다에 대한 긍정응답에서 ‘한국인 부부 여’는 13.0%, ‘국제결혼 부부 여’의 경우 31.7%로 2.5배정도 애정표현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일본제외)  
 20) 본 통계는 한국다문화건강가정지원협회 부설 다문화가족상담센터의 2009~2014년의 내부통계임.  
 21) 성인중기는 사춘기 만큼 급격하면서도 독특한 생물학적·사회적 변화를 겪는 시기로 중년의 위기를 겪기도 한다. 이는 생의 발달주기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겪는 것으로 건강하게 겪을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교육이 필요하다.

본법인 상담소에서 상담을 했던 성인기 내담자중, '경제적 활동이 어려울 때 아내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 내담자가 90%, '가끔한다'는 60%였으며, 이러한 심리적 갈등으로 아내에게 화를 내 본 적이 있다(80%). 물건을 던져 본 적이 있다(65%).로 답변을 하였다. 이는 신체적 변화에 따른 심리정서적 불안이 혼인관계유지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져 부부갈등을 겪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국제결혼부부 남성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세상이 험한데 세상에 대해 모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시, 남편들의 답변은 "아내가 자신들보다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가?" 였으며, "자신들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내가 아이들과 어떻게 살아가겠느냐?"는 것이었다. 남성들에게 세상은 어떤가를 질문하자 "세상은 험하고 무섭다" 세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국제결혼가정 남자들이 살아온 삶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본 상담소를 다녀간 국제결혼 남성 중 초혼 32%, 재혼 68%이며, 삼혼이상의 경우도 20%를 넘었다. 또한, 혼인초기 배우자와의 갈등요인이 심각했을수록 추후 혼인관계에 대해 두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여진다. 본상담소에서 위기상담을 했던 내담자 남성 중에 정규직을 남성은 35%에 불과했으며 그 외는 일용직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가정폭력 어린시절 가정폭력 피해자는 70%가 넘었다. 따라서 국제결혼 부부 남성에게도 따뜻한 사회적 시선이 필요하다.

앞에서 보았듯이, 국제결혼남성의 경우 미래에 대한 가장 걱정은 "건강"이 었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에 참석한 남편의 경우 자신의 건강을 위해 1주일에 한번정도 운동은 하는 경우는 10%도 안되었다. 오히려 "피곤해서 밥을 먹고 잔다. TV를 본다"가 많았으며, "짜증을 잘 낸다", "피곤하다",라는 말로 무기력을 호소하였으며, 성인초기에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22)의 경우,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는 남편이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짜증을 내며 아프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국제결혼 아내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장 스트레스가 많이 되는 것으로 '남편의 잔소리(100%)'와 '아프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힘들다" 며, 잔소리를 줄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문화가족 아내가 가장 듣기 싫은 소리로는 "00는 이혼했다더라 만나지 마라"는 소리이며 그와 나를 동일시 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중 이혼한 사람이 있으면 만나지 말라고 하는 남편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는 말에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답을 하였으며 욕설을 들었다는 경우도 70%가 넘었다. 남편의 잔소리 사례로는, 초기에는 한국어와 한국문화관련 잔소리를 한다면, 결혼 5년 이후에는 한국생활에 대한 통제나 적극적인 활동을 요

22) 결혼초기를 지난 결혼이민자 여성은 성인 초기에 다양한 경험과 친밀감을 통해 한국사회적응을 시도한다.

구함으로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남편의 무관심(85%), 지나친 관심(65%)<sup>23)</sup>도 다문화가족 아내를 힘들게 하였다.

성인중기의 무력감은 변화를 거부하거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계획을 세우거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구상이 쉽지 않다. 성인중기를 지나는 국제결혼 남성의 경우, 자영업자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할지 걱정이다.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대학까지 공부를 가르칠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며,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가 없다. 답답하다고 호소하였다. 이는 퇴직금조차 없는 일용직의 경우 더욱 크게 나타난다. 이는 발표자의 논문에서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계획을 세운다<sup>24)</sup>라는 항목에 ‘국제결혼부부 남성의 경우 39,2%만 그렇다고 답변을 했으며, 국제결혼부부 여자의 경우 60,7% 그렇다고 답변을 하였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저급 여나 일용직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많더라도, 자신들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컨설팅을 통해 미래의 꿈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국제결혼부부 여자의 54%는 ‘배우자뿐 아니라 앞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다고 대답하였으며, 국제결혼부부 남자는 32,9%만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정의 상담의 경우, 인권문제 뿐 아니라 생애발달주기에 따른 교육 및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결혼부부의 경우도 자녀양육에 대한 걱정을 한다. 다문화가정 아내들의 경우 대부분의 개인 상담 및 집단 상담에서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걱정을 한다. 본 프로그램에서도 “자기야 우리 미래 어떻게 아이를 잘 될 수 있게 교육해보자” “자기야. 우리 미래 좋은 엄마 아빠 되기 위해서 좋은 교육 많이 가르쳐줬으면 좋겠다”고 하였으나, 실상은 한국인 배우자 부부남성보다 자녀양육에 신경을 덜 쓰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교육하는데 참여한다’에 한국인부부 남성의 경우 20,8%가 긍정의 답을 한 반면 국제결혼 가정 남성의 경우 16,7%만 답을 하였다. 자녀교육에 신경을 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몰라서” “방법을 모른다”고 대답하거나 “어렵다” “시간이 없다”는 답을 하였다. 이는 국제결혼가정 남성의 경우, 낮은학력과 학습관련 지도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경우도 80%이상이었다. 따라서, 국제결혼 부부 남서의 자녀교육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녀들과의 소통과 친밀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

23) 관심부분 중복 답있음.

24) pp133

### 3. 부부갈등대처방식<sup>25)</sup>

부부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 각각에게 수용적인 대안을 찾는다.”에서 국제결혼 부부 여자는 19.0%가 그렇다고 응답하고, 한국인부부 여자는 46.9%가 그렇다고 응답하여서 국제결혼 부부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수용적인 대안을 못 찾고 있다고 보여진다. “욕을 한다.”에서 한국인부부 남자가 11.7%인데 비해 국제결혼부부 남자는 21.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한국인부부 여자가 2.6%인데 비해 국제결혼부부 여자는 10.1%가 그렇다고 응답하여서 국제결혼부부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욕을 하는 대처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협의하고 타협한다”에서 한국인 부부 여자는 57.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국제결혼부부 여자는 21.8%가 그렇다고 응답하여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국제결혼부부가 협의와 타협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갈등이 발생했을 때 본인의 반응을 보면, 국제결혼부부는 협의하고, 타협하기보다는 욕을 하거나, 인신공격을 하여서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대처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역활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인이 직업생활(돈을 벌 경우)을 할 경우 남편은 식사준비, 청소, 세탁 등의 집안일을 해야 한다.”에서 국제결혼부부의 남자는 38.0%, 여자는 67.0%가 그렇다고 응답하여서 부부간의 인식의 차이가 분명하였다. “남편은 자녀와 가정을 돌보는 것에 대해 부인과 똑같은 책임이 있다.”에서 국제결혼부부 남자는 46.2%, 여자는 69.6%가 그렇다고 응답을 하여서 남편은 자녀와 가정을 돌보는 것에 대한 책임이 적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부인이 직업을 가졌더라도, 가족 부양은 전적으로 남편의 책임이다.”에서 국제결혼부부 남자는 38.0%, 여자는 52.0%가 그렇다고 응답하여서, 국제결혼부부 여자가 본인이 직업을 가졌더라도 가족의 부양이 전적으로 남편의 책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가정 내 여러 가지 일을 결정할 때 남편의 의견이 부인의 의견보다 중요하다.”에서 국제결혼부부 남자는 53.9%, 여자는 20.5%가 그렇다고 응답하여서, 부부의 의식차이가 분명하였다. “의견충돌이 있을 경우, 남편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에서 국제결혼부부의 남자는 51.9%와 여자는 14.1%가 그렇다고 응답하여서, 부부의 의식차이가 분명하였다.

“국제결혼부부 남녀는 각각 22.8%, 15.2%가 그렇다고 응답하여서, 국제결혼부부는 부부의 대화형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 부부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한다.”에서 한국인부부 남자는 62.0%가 국제결혼부부 남자는 34.2%는 그렇다고 응답하여, 국제결혼부부 남자가 부부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 부부는 서로의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

25) 안현숙 논문 pp 137

다.”에서 한국인부부 남녀 각각 64.5%, 55.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지만, 국제결혼부부 남녀 각각 39.2%, 25.3%가 그렇다고 응답하여서 국제결혼부부가 서로의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다. 즉, 응답한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결혼부부의 남자는 성역할에 있어서 가장 가부장적인 경향이 있으며, 국제결혼부부의 성역할에 대한 의견차이가 분명하였고, 국제결혼부부는 서로간의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국제결혼가정의 가족갈등의 경우, 부부의사소통의 문제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배우자의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이다. 대부분 모계사회에서 남녀평등을 배우고 입국한 국제결혼부부 여성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태도를 인권침해, 혹은 자신에 대한 무시로 인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지 언어가 달라서 의사소통이 안되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인 부부보다 더 국제적인 생각으로 접근해야 하는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의 부족인 것이다.

한국 부부의 갈등의 요인 중 하나는 시대과의 관계이다.

가톨릭대학교 심리학자 장성숙은 고부갈등이란 아들을 믿고 며느리에게 유세를 피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믿고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부인의 갈등으로 정의<sup>26)</sup>한다.

“두 여자 사이에 끼인 남자가 처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고부갈등은 줄어들기도 하고 커지기도 한다, 그러나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식사나 아이들 양육관련, 한국생활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도움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등 시대가족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경우, 시대의 갈등으로부터 아내를 보호하기는커녕, 함께 외면하거나, 짜증을냄으로 갈등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 한국인의 지나친 情(정)적인 문화와 배려하는 국제결혼부부 여성을 매우 힘들게 한다.

성역할이 개인의 내외적 행동, 자존감, 정서적 반응, 인지적 기능, 심리적 태도와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으며(G, Bell, & K, Schaffer, 1976), 사회학자 스캔조니(Scanzoni)는 성역할 개념을 아래의 3가지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첫째, 남성은 지배적 집단이고 여성은 종속적 집단이라는 남녀성의 계층화 개념과 둘째, 엔젤(Engel)의 경제 구조론에 기초한 남녀 간의 노동 분업개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역할 규범의 개념이다. 전통적인 성역할은 남성은 가정 밖에서 도구적 역할을 수행하고 여성은 가정 내에서 가사와 육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현대사회에는 남녀평등사상의 확산, 가사노동의 감소, 여성취업의 증가 등으로 인해 여성의 성역할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었고, 부부간의 역할도 성에 의해 고정시키지 않고 융통성을 지향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성차별적인 가부장제의 전통과 남성의 성차별적 태도가 부부관계의 갈등으로 나타난다. 때문에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부부의사소통의 장애물로는 문화적 차이와 성역할에 대한 학습차이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간접적 의사소통과 이중 메시지 또한 지나친 일반화와 불확실한 가정이 장애물이 된다. 송성자는 부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에 초점을 두고 정상가족과 문제가족을 비교하기 위해 한국 가족구조, 한국인의 성격, 가치관, 한국 가족의 성격 등 주로 사회심리학적 요인에 의해 분류하여 남편과 부인의 의사소통 유형을 조사하였다. 송성자가 연구한 한국인의 의사소통의 특징을 한국부부의사소통의 특징과 연계해 보면, 한국부부 의사소통은 첫째,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다. 부부의사소통에서 배우자와 동일시하는 습관에서 탈피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일방적 의사소통이다. 우위에 있는 배우자가 자신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피력하여 상대방이 이를 수용하도록 기대한다는 것이다. 셋째, 과거지향적 의사소통이다. 과거에 집착한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반대한다는 뜻이며 발전적이지 못한 의사소통이다. 넷째,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이다. 지나친 감정적 의사소통은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하여 잘못 행동을 하게 하는 수가 있다(송성자, 2004).

## 4. 마무리

다문화가정의 관계개선상담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sup>27)</sup>.

첫째, 부부의 결혼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부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갈등 발생 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부부간 공평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국제결혼부부 남자의 결혼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선정되었던 세 가지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가 갈등 상황에서 갈등을 부채질할 수 있는 비난과 행동(배우자 갈등 개입)을 하는 것이 결혼만족도에 가장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그와 비슷한 정도로 더 이상 본인이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거나, 자리를 피해버리는(본인 후퇴) 행동이 남편의 낮은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있었다.

셋째, 부부간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국제결혼부부 여자의 결혼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인은 아내가 지각하는 의사소통이 되는 정도와 본인이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갈등을 부채질할 수 있는 비난과 행동을 하는 것이 본인의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변인이었다.

즉, 국제결혼 부부의 경우, 부부간 공평하다고 느끼는 정도보다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아내가 남편을 비난하거나 헐뜯지 않고, 남편 또한 침묵으로 응대하거나 피하기만 하는 수동적 대처보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필요하며, 부부간 의사소통이 된다는 느낌이 결혼만족도를 높이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넷째, 발표자가 경험한 다문화상담에 대한 이해는 일반 한국인 부부상담보다 더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화된 상담사의 고도의 전력을 통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통역자의 발골이다. 아무리 훌륭한 상담을 할지라도 통역자의 분명한 전달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 따라서 전문화된 이주여성통역사 발골이 시급하다,

---

27) 안현숙 논문



## 사례발표\_ I

# 내국인 부부와 다문화 부부 상담의 같음과 다름

김경자 상임연구원 \_ 김영애 가족치료 연구소

부부상담에 오는 부부를 보면 처음에는 서로 매력을 느낀 두 사람이 상대방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하며 행복한 미래를 기대하고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한 후에 서로 다른 점들을 발견하면서 상대방에게 실망을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이 원가족부터 사용했던 익숙한 방식들을 사용하다가 지쳐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은 내국인 부부와 다문화 부부 상담이 다르지 않은 부분이다. 결혼 후 '다름'을 발견해가면서 갈등을 경험하는 부부의 경우 그 근본에는 '가족문화'의 다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다문화 부부의 경우 '다름'의 차원은 단지 가족문화의 다름의 차원을 넘어 국가 간의 '문화의 다름'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부부상담의 현장에서 내국인 부부와 다문화 부부의 상담 실제에서 '다른 국가 문화의 만남'에서 오는 다름과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오는 같음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선 문화의 다름 부분을 생각해 보자. 내국인 부부가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 그 뿌리는 '가족문화'가 다름에 있다. 예를 들어 돈의 사용 방법이나 돈에 대한 개념, 가사분담, 가족채기기, 친구범위, 기대들, 원가족의 경험(규칙, 신념, 학대, 가족비밀 등) 등이 그 예이다. 내국인 부부의 경우 위에서 열거한 부분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 가족문화'라는 큰 틀에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머리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 장면에서 부부가 함께 상담 목표를 합의하고 나면, 서로 협의를 하여 변화할 부분들을 찾고, 조정을 하여, 과거의 영향에서 놓여나는 경험을 하고, 오래된 패턴을 변화시켜서 부부가 함께 새로운 방향을 향해 나갈 수 있다. 그렇지만 다문화 부부의 경우 좀 더 구체적으로 '국가의 문화가 다름(사회적 배경이 다름도 포함됨)'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성장한 부인은 '남녀 평등'이라는 문화에 익숙하다. 이들에게 '가부장적, 남자니까, 여자니까' 하는 등의 표현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다. 당연히 '가부장적 문화'에 젖어있는 한국 가족생활에 적응하기 어렵고, 실제로 왜 적응을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왜 시어머니에게 매일 안부를 여쭙어야 하는지?', '나는 내 방에서 쉬고 있는데 왜 나보고 나와서 과일을 같이 먹자고 하는지?', '밥을 왜 나만 해야 하는지?', '자신의 물건은 자신이 치워야지 왜 내가 다 수발을 들어야 하는지?' 등과 같은 생각을 하며 실제 결혼 생활에서 이런 부분부터 남편과 심각한 갈등을 갖게 되기도 한다. 이럴 경우 상담 장면에서 상담사가 '그것이 한국 문화이다. 한국에서는 어른 공경 사상이 있고... ..'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부인은 아예 상담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된다. 이럴 때 한 가지 방법은 '내담자에게 자신의 문화를 소개'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는 것이다.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내담자는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 존중받는 경험은 내담자의 심리적 긴장감을 내릴 수 있는

중요한 경험으로 이러한 경험을 한 후에야 비로소 상대방의 이야기를 오해하지 않고 들을 수 있게 된다. 상담자가 다문화 부부의 '문화적 다름'에 특별히 민감해야 하고 문화적 다름에 대해 많은 정보가 상담 장면에서 오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문화가 다름'은 결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다문화 부부의 경우 문화수용의 수준과 통합의 정도에 따라 결혼 만족에 큰 차이를 보이며(김인철, 2006; 최혜지, 2009), 이와 연결하여 한국문화 정체성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보고(권복순·차보현, 2006)도 있다.

문화접촉의 결과 나타나는 집단의 특성을 볼 때 이동성, 자발성, 영속성의 세 가지 요소(Berry & Sam(1997), 이영분 등, 2010에서 재인용)로 볼 수 있다. 첫째, 이동성은 체류국가 문화로 옮겨갔는지의 여부와 새로운 문화의 사람들을 받아들였는지의 문제다. 다문화 가족의 결혼이민자들은 거주하는 국가의 문화로 옮겨간 사람들이고 원주민과 민족문화 집단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어느 편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지 상담자는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자발성은 문화적 이동이 자발적이었는지의 문제로 자발적으로 결혼한 경우도 자신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이동을 했다는 것을 상담자는 알고 있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문화적인 이동을 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상담자는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영속성은 얼마나 오래 새로운 문화 환경에 살게 될 것인지의 문제이다. 결혼을 할 때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다. 단지 벽에 부딪혔을 때 내국인 부부는 고민을 하고 상대방을 바꾸려는 시도라도 하는 반면, 다문화 부부는 상대방이 바꾸라고 요구를 한 다음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이혼을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경우(가출)가 많다.

특히 결혼 이민을 선택한 여성들은 초기 적응 과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외부로부터의 최소한의 도움으로 스스로 문화적 차이와 언어장벽을 극복하며 홀로서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여성들의 문화적응을 돕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그 개입은 다문화 여성들이 자신의 문화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자국의 문화에 대해서 주입식으로 요구하기 보다는 서로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필요하며, 상담 장면이 그러한 상호 문화 이해에 대한 좋은 시작점일 수 있다.

다음으로 내국인의 부부상담과 다문화 부부 상담에서의 '같은 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어느 경우이든 부부의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부부가 상대방으로부터 충분히 '수용받은' 경험이 부족하며, 서로 상대방의 등을 보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자신을 봐 달라고 요구만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내국인, 다문화 부부 모두 부부상담의 장면에서 부부가 서로 다른 곳을 보면서 이야기한다면, 부부가 상대방에게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도 상담자를 향하여 이야기

하곤 한다. 물론 의사소통 자체에서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내국인 부부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반복한다면, 다문화 부부는 서로 겹으로는 제한된 공통의 언어기술을 가지며 내면으로는 아예 다른 언어로 자신을 주장한다는 점이다. 다문화 부부의 경우 내면의 언어가 완전히 다름으로 인해 화해점을 위한 열쇠를 찾기가 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내국인 부부의 경우 일반적인 부부상담의 프로토콜을 따라 상담을 진행한다면, 다문화 부부의 경우 두 사람을 엮는 지점(예를 들어 아이들을 위한 부모 역할)을 먼저 찾아 그 역할에서의 강점을 나누면서 부부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의사소통 기술의 연습상황에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상대방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수용한다는 메시지 보내기)' 작업을 하고 나서 '(연결된 상태에서)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표현하기'를 하는 것이 상담을 효과적으로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다문화 부부의 경우 사회경제적인 요인보다 배우자간의 상호작용 요인이 더 강한 영향력을 가졌다는 연구결과(김은경,2010)는 상담자들이 다문화 부부의 상담에서 부부 상호작용을 긍정적이 방향으로 향상시키는데 관심을 가져야 함을 대변해준다고 본다.

부부가 상담 장면에서 온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에너지이던지 아니면 관계에 대한 에너지이던지 어떤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안정과 안정에 대한 욕구나 사랑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 존중에 대한 욕구 등이 활동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부부상담에 오는 내담자부부가 내국인이던 아니면 다문화 부부이던지 간에 상관없이 어느 부분의 욕구가 활동하고 있는지 민감하게 알아채고 긍정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움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관심은 내담자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가 아니라 "사람"이며, 특히 각자의 독특한 문화우산을 쓰고 있는 사람이다.

#### \*참고문헌

- 권복순,차보현(2006). 농촌지역 코시안 가정주부의 의사소통 능력, 문화적 정체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회지.58(3).
- 김은경(2010). 경남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28(3).
- 김인철(2008). 결혼이민자 여성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 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분, 이유경(2010). 거주지역에 따른 결혼이민자 여성의 자아분화 및 문화적응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1).
- 최혜지(2009).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과 관련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지. 61(1).

## 사례발표\_ II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부부상담 현황과 과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중심으로-

김혜경 상담사 \_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1. 다문화 부부상담의 현황

다문화부부상담의 수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조사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는 그만큼 지역적 특성과 어떠한 호소를 가지고 어떠한 경로로 상담했느냐에 따라 그 수는 확연한 차이가 있을거라 여겨진다. 따라서 소개되는 상담은 전국통계 부부상담이 아니며 사례내용 또한 주제에 따라 명확하지 않으나 마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한 부부상담 사례현황이다.

본 상담통계는 마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방법에서 95%이상 센터내 면접상담사례이며 이 수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보고된 상담통계이다.

- 2012년 총 130건 중 개인상담 82건 가족상담 48건(2인 기준)
  - \* 보고되지 않은 부부상담 사례 18건 포함 148건
- 2013년 총 128건 중 개인상담 81건 부부상담 47건(2인 기준)
  - \* 보고되지 않은 부부상담 사례 5건 포함 133건
- 2014년 총 105건 중 개인상담 63건 부부상담 42건(2인 기준)
- 2015년 9월 현재 61건 중 개인상담 40건 부부상담 21건(2인 기준)

## 2. 상담별 주제

주제 \ 년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 건수(%)	*148(%)	*133(%)	105(%)	61(%)
의사소통문제	91 (61)	61 (45)	51 (48.5)	28 (46)
문화차이	14 (9)	11 (8)	6 (5)	8 (13)
체류·국적관련문제	2 (1)	1	-	-
배우자의 외도	7 (4)	3 (2)	-	-
경제 상담	5 (3)	14 (14)	6 (5.5)	10 (16)
배우자의 가출	5 (3)	2 (1.5)	4 (4)	2 (4)
폭력	3 (2)	1	2 (2)	2 (4)
임신·출산	2 (1.5)	2 (1.5)	-	-
이혼	2 (1.5)	6 (4)	2 (2)	1 (1)
취업	-	4 (3)	3 (3)	3 (5)
시부모와의 갈등	3 (2)	8 (6)	2 (2)	1 (1)
기타	18 (12)	20 (15)	29 (28)	6 (10)

### 3. 상담관련 진행 방법

방법	내용
전화상담	1회기성 상담문의 위주
센터내방상담	95% 이상으로 센터를 내방하여 상담진행 예약접수 및 위기상담은 바로대처
방문상담	예약 후 가정 방문 및 질병으로 인한 병문안 상담
사례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후원을 위한 정보수집과 동의
상담기법	해결중심상담과 내담자 요청으로 드라마치료를 1회 실시
수퍼비전	2013년부터 상담사례 중 매해 2개 이상의 사례를 수퍼비전 받음

- 마포구다문화센터에 상근상담자 1명이 4년간 상담한 내용

### 4. 다문화상담의 상담자 신념과 태도

- 결혼이민자의 국가문화에 대해 다양한 정보와 이해를 가진다.
- 다문화가족 모두 함께 행복해지는 목표를 우선으로 한다.
- 양쪽배우자 모두 결혼에 대한 이해도를 구체적으로 다룬다.
- 성 교육과 결혼으로 인해 따르는 가족관계와 태도변화에 대해 교육한다.
- 때론, 통역 상담 시 내담자와 통역자가 얼마 동안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내담자의 라포형성)
- 한 번의 질문으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많은 질문보다 상담자가 원하는 핵심적인 질문과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역할 나눔으로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읽게 하고 도표 숫자의 척도를 이용하여 부부의 빠른 이해를 돕는다.

## 5. 주제별 상담사례의 다문화 부부의 특성과 주된 호소

### - 의사소통의 문제

부부관계 및 성관계에 대한 의사충돌

대부분의 배우자는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백년 살고 싶다*지만

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은 원가족의 생계와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입국하게 되며 결혼이민생활에 우선이며 그 역할을 이루어내고자 한다.

(유형계통에 종사하는 배우자의 부부사례)

### - 문화차이

아침식사 문제

한국은 배우자가 아침을 아내로부터 잘 대접 받아야 아내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여긴다.

동남아 및 중국은 대부분 아침식사는 사 오거나 나가서 먹는 관례이므로 아침을 손수 준비하는 일이 별로 없다 (매끼니 고기 먹는 것을 좋아하고, 배우자가 원하는 한국의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적음)

### - 체류·국적관련

이혼 후 지속적인 국내 체류관계 문의(법적인 대처를 많이 물음)

### - 배우자의 외도

아내가 외국인 근로자와 외도로 인한 부부문제가 발생했을 때(배우자의 대부분은 지속적인 결혼생활을 원함)-많은 비용과 어렵게 결혼을 이루게 된 이유

### - 경제상담

배우자들의 대부분은 안정적인 직장생활보다 비정규직에 종사자가 많으며 주말 또한 일하는 종사자들이 많다. 따라서 아내가 정착할 때까지 아내와 정서적 교류가 충분치 못한 대상자가 많고 경제적 자립권을 대부분 남편이 가지고 있다. *서울시에 서 취업과 관련 설문조사에 중등학력이상으로 체크, 취업욕구지속*  
결혼이민자가 생계를 책임지는 가정도 있음

### - 배우자의 가출

경제적 상황이 여의지 않거나 결혼이민자들이 자신의 여건과 맞지 않을 때에는 가출을 이행하는 대상자들이 다수

기준에 들어와 있는 인척과 지인들과 교류하므로 필요에 의한 위장결혼이 대부분 임

- 폭력

가정폭력으로 2012년에 비해 현재 자신들의 방어와 대처가 높아졌으며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 및 홍보로 인하여 발생이 많이 준 상태  
(*너희 나라로 돌아가!*, *나가!*, 때로는 가정폭력을 유도하는 결혼이민자들도 있음. 컴퓨터연계의 문제점 검토)

- 임신·출산

시부모가 참견하는 임신, 중절수술

- 이혼

배우자보다 결혼이민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혼으로 따르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문의. 이혼 후 국내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 이혼은 국내 가정법에 적용 받으며 서류처리는 1년에서 1년 반이 걸림. 근래 빨라졌으며 결혼무효신청도 있음(*이혼 후 배우자 집에 거주를 유도함*)

- 취업

2014년부터 배우자를 선택하는 우선권이 결혼이민자들의 나라에서 결혼이민자들에게 있고, 취업을 전제한 결혼과 서울에 거주하는 조건이다라고 함  
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결혼이민자들의 선택이므로 국내 입국 시 일터로 바로 나가는 사례가 많아짐 따라서 한국어 향상이 매우 부진 할 것으로 예상 됨

- 시부모와의 갈등

다문화가족의 많은 사람들이 시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가 많음. 이에 갈등의 원인이 되며 이것은 주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으로 이어지는데 분가하여 일정기간 생활하게 될 때 취약계층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우가 많음.(세무회계상 부모와 함께 살 때 공시가 60% 자녀의 재산으로 인정 함)

- 기타

자녀 양육태도, 자녀 교육문제 등

## 6. 다문화 부부상담 후 소감

- 다문화가족법에 의한 부부상담을 실시하므로 결혼이민자를 대부분의 성향을 이해하고 한국의 남성들의 가정을 이루고자하는 욕구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였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됨
- 지속적인 상근 상담자로 장점은 결혼이민자는 물론 다문화가족에게 모두에게 신뢰는 물론 앞선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례관리대상자들은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는 것과 그들의 이웃으로서 센터가 존재하고 관계유지를 이룸으로 안정적 정착을 이루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자부 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접목하여 상담을 알리고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상담은 체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전문화된 지원임을 알게 하고 대상자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하기까지 자신의 역할확대를 도움

## 7. 다문화부부의 전략과 과제

다문화부부 상담의 과제		
배우자 문화의 충분한 이해, 결혼이해도에 따른 의견 조율, 건강한 부부를 위한 의무화 교육		
	전략	핵심과제
1	다문화부부의 역량강화	과제 1 : 배우자 모두가 원하는 행복의 조건을 중심으로 상담을 이룸 과제 2 : 결혼의 이해와 부부교육 강화
2	지지집단의 역량강화	과제 3 : 실적이 아닌 질적 서비스의 접근 과제 4 : 다문화상담의 한국적 접근법 체계화
3	진정한 다문화부부 환경조성	과제 5 : 다문화부부를 보는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확대 과제 6 : 결혼이민자 법에 대한 구체적 사례 및 현장보고 과제 7 : 한국어교육을 강화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기까지 규정

- 다문화부부들의 결혼은 철저히 개인의 의사와 결정에 의한 결혼임을 인식하고 사랑과 책임으로 가정으로 세워지는 과업이 되어야 한다.
- 합법적인 결혼을 이루어지기까지 합리적인 이유와 애정의 조건들을 솔직하게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
- 상담을 다문화사업의 실적에 우선하지 않고 다문화가족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원하며 복지와 질적인 서비스로 제공이 되어 질 수 있도록 인식개선과 전문화되어야 한다.
- 다문화가족을 이루고자하는 가족과 이웃들은 준비된 다문화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교육 및 안내가 필요하며 다문화가족에게 관심을 갖는 네트워크 연계기관들은 지원이나 돕는 것이 우선이 아닌 함께하는 이웃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사례발표\_ III

# 법률상담을 통해 본 다문화가족의 갈등 및 관계개선 가능성

조속현 변호사 \_ 법무법인 한결

## 1. 시가 식구들과의 갈등 및 자녀 양육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인한 분쟁 사례

[ 사실관계 ]

2005년 혼인 및 입국

2008년 자녀 출산

2009년 귀화

내담자는 결혼 후 시부모, 시누이 3인, 막내시누이 자녀, 남편, 자신의 자녀 등 8식구가 한집에서 살면서 가정부 취급을 받으며 청소, 빨래 등 모든 살림을 혼자 해야 했음.

내담자는 시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분가를 하여 신청인과 남편 둘이 살 때는 별 문제 없이 지냈으나, 임신을 한 후 다시 시가로 들어감

시가에서 시누이, 시모 등은 내담자에게 가사와 집안청소를 시키고 자녀 양육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하게 함

내담자가 친정 본국에 자녀를 데리고 다녀오려 하여도, 시모 시누이들의 반대로 데려가지 못함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시아버지가 인간적으로 대해주었으나, 사망 후에는 모든 식구가 내담자를 구박하였다고 함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도 시누이가 가서 엄마행세를 하는 등 자녀 교육과 양육에서 내담자를 배제시킴

내담자는 시누이의 부당한 간섭을 피해 남편 및 아이와 함께 살고자 하나 남편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음

[ 결과 ]

내담자는 이혼 후에도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였으나, 매일 공장에서 일을 해야 하고 일하는 동안 자녀를 돌봐줄 보조양육자도 없고 자녀와 함께 거주할 환경도 적당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아이 아빠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면접교섭을 보장받는 것으로 이혼조정을 함

내담자의 남편은 시모와 누나들로부터 경제적 생활적 독립을 이루지 못한 상태였고, 대를 잇는다는 한국적 관습에 의해 내담자의 자녀를 시모와 시누 등 온 가족이 한국인처럼 키우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였던 것으로 보였음

가문의 유지 등 목적으로 자녀 출산을 하고자 외국인 아내를 맞는 사례의 경우, 한국인 가족 내에서 외국인 아내가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2. 폭행 및 부부갈등을 이유로 한 이혼사례

[ 사실관계 ]

2007년 혼인 및 입국

2008년 자녀 출산

내담자는 한국에 대한 선망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하여 한국으로 왔다고 함  
내담자는 남편의 폭행과 생활비 미지급을 이혼사유로 주장했고 남편은 내담자가 결혼 후 한국 가족에 적응하려는 것보다 경제활동을 하는 것에 더 열중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음  
문화와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이 이어지다가 남편이 폭행의 이어져 이혼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지는 사례임

혼인기간 중 내담자는 경제활동을 하였으므로 자녀 양육은 시모가 하였고 이혼 후 경제활동을 하면서 어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님을 설명하고, 친권자 양육자는 남편으로 하되 자녀와 함께 친정 본국에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으로 조정함

[ 결과 ]

중개 국제결혼의 특성상 한국인 남편은 외국인 아내와 신뢰를 쌓을만한 시간이나 교류를 할 수 없었고, 남편은 자녀가 외국인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한국인과 유사한 피부색을 가진 사람으로 아내를 선택했다고 하여 결혼의 목적이 부부사이의 관계보다는 2세 출산에 있음을 알 수 있었음

남편은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한국에서 돈을 벌어 친정에 보낼 생각으로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음

아내는 남편과의 단란한 관계를 꿈꾸며 국제결혼을 선택했으나 남편은 자신의 자녀를 낳아줄 사람으로 아내를 구한 것이므로, 혼인생활 자체가 원만히 유지되기 어려운 사례일 수밖에 없었음

### 3. 남편의 게임중독, 폭행, 폭언, 가출로 인한 혼인파탄 사례

[ 사실관계 ]

2011년 혼인신고 및 입국

2012. 12. 남편 가출로 혼인파탄

결혼 후 시모와 함께 거주, 남편은 신혼 초부터 일은 하지 않고 게임에만 몰두, 시모가 야채, 계란 등 식료품 구입해주었으나, 결혼 4개월 후부터는 중단 먹을 것이 없어 밥에 설탕을 넣어 먹기도 함

2011. 12. 내담자가 일을 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남편과 시모 용돈 요구 남편이 비자 연장한다며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나가 휴대전화 개통하여 사용한 후 요금내지 않고, 시모는 내담자에게 돈을 벌어 결혼비용, 비행기표 등 갚으라고 요구하며, 생활비 등 일체 부담하지 않음

남편이 밤에 들어와 내담자의 카드 훔쳐가 돈을 인출해가기도 하고, 집에서 돈을 훔쳐가기도 함

남편이 카드 훔쳐가는 것을 막으려고 몸싸움을 하다가 폭행당해 얼굴과 눈에 멍이 들기도 하고, 욕설 등 폭언

2012. 12. 남편이 내담자 회사에서 내담자의 월급을 받아 집을 나간 후 집에 돌아오지 않아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함

[ 결과 ]

남편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 진행하여 이혼 및 위자료 판결 받음

#### 4. 소송사례를 통해 본 다문화 가족의 갈등 원인 및 관계개선 가능성

위 소송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인 남편의 경우 결혼의 목적 자체가 2세 출산, 남편 부모의 의지 등에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가정의 경우 외국인 아내가 남편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며 살지 않는 한 관계개선을 통한 혼인관계 유지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 자체가 가지는 문제점으로 단 시간의 만담으로 결혼에 이르는 국제결혼중개를 통하는 한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2세 출산을 목적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한 한국인 남편 가족의 경우 남편과 남편의 부모 형제들은 자녀의 양육에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 아내의 경우보다 자녀 양육에서 있어 우월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외국인 아내는 이혼 후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들과의 만남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데, 아이들이 어린 경우 외국인 엄마의 존재를 외면하고자 하는 성향이 나타날 수 있고 아이가 적극적으로 엄마와의 면접을 거부하는 경우 면접교섭 진행이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혼한 후 어린 자녀를 양육하거나 면접교섭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자녀와의 관계 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기관소개

서울시이주여성상담센터는 서울시 지원으로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위탁하여 이주여성 및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이주여성 상담원이 직접 다양한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법률지원 등 One-Stop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 1. 연 혁

- 2013.06 서울시 위기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사업 계획 수립
- 2013.07 서울시 위기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사업 수행기관 공모
- 2013.07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수행기관으로 선정
- 2013.08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및 한울타리 쉼터 설치
- 2013.09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상담활동 개시 (민간단체보조금지원사업)
- 2015.01 서울시 위탁사업으로 전환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운영)

### 2. 주요사업

- 1)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 전화상담
  - 면접상담
  - 온라인상담
  - 찾아가는 현장방문 상담
  - 심리, 정서, 개인, 가족상담
- 2) 한울타리 쉼터
  - 단기보호(3개월)
  - 개인 . 집단 상담
  - 가족치료 및 정서 치료
  -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 3. 사업목표

- 이주여성 전문상담과 지원체계를 통한 인권보호와 사회안전망 구축
- 일시보호시설 운영 (한울타리 쉼터)을 통한 위기이주여성 사각지대 완화
-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한국어 등 5개국 언어 활용 이주여성상담원이 직접 전화 및 방문, 면접 상담을 통한 문제해결 중심의 상담













 서울특별시 지원

서울이주여성  
근상담센터

**Seoul Counseling Center for Migrant Women**

03188)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6층

상담전화 02) 733-0120 전자우편 smf0120@hanmail.net

전송 02) 735-0120 사이버상담 <http://www.mcfamily.or.kr>